

(가)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응혜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타끌 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정약용, '보리타끌'

(나)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후렴)
 이바라 농부야 내 말 듣소 이바라 일꾼들 내 말 듣소.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하늘님이 주신 보배 편편옥토(片片沃土)가 이 아닌가.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물꼬 찰랑 돌아 놓고 권네 영감 어디 갔나.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한다 소리를 펴 잘하면 질 가던 행인이 질 못 간다.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자로 하네 우리야 일꾼들 자로 한다.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저 논배미로 건너가세.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담송담송 댕 마지기 반달만치만 남았구나.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일락서산(日落西山)에 해는 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에 달 돈다.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못하는 건 우리야 일꾼들 숨씨로다.

-‘논매기 노래’

(다)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흔고.
 냇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들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서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
 리(夕陽裏)에 뛰여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류 소릭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들소나.
 시비(柴扉)에 거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하네,
 (㉠)을/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정극인, '상춘곡'

- 【문 5】 (가)~(다)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다)와 달리 (나)의 계절적 배경은 알 수 없다.
 - ② (나)와 달리 (가)와 (다)에는 자기 반성적인 태도가 담겨 있다.
 - ③ (다)와 달리 (가)와 (나)는 평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생각을 표현하였다.
 - ④ (다)와 달리 (가)와 (나)에는 노동하는 평민들의 낙천적이고 굳센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문 6】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4음보를 기본으로 3·4조 또는 4·4조의 음수율이 구사되었다.
 - ② 논에 모를 내면서 노동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부른 민요이다.
 - ③ ㉠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부분으로 흥을 돋우어 피로를 잊게 한다.
 - ④ ㉡은 농부들의 자부심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으로 낙천성을 잘 드러낸다.

- 【문 7】 (다)글의 ㉠에 들어갈 말로, 주제를 함축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표누항(簞瓢陋巷)
 - ② 한중진미(閑中眞味)
 - ③ 청풍명월(淸風明月)
 - ④ 주객일체(主客一體)

【문 8】 다음 ㉠~㉣ 중 한자의 표기가 틀린 것은?

나는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나라마다 안으로는 정치상, 경제상, 사회상으로 불평등, 불합리가 있고, 밖으로 국제적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시기, ㉡알력, ㉢침략, 그리고 그 침략에 대한 보복(報復)으로 작고 큰 전쟁이 끊일 사이가 없어서 많은 생명과 재물을 희생하고 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심(人心)의 불안(不安)과 도덕(道德)의 ㉣타락은 갈수록 더하니, 이래 가지고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 인류는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 ① ㉠시기 : 猜忌
- ② ㉡알력 : 軋轢
- ③ ㉢침략 : 侵略
- ④ ㉣타락 : 墜落

【문 9】 다음에 제시된 외래어 중 표기법에 맞는 어휘의 수는?

기부스, 슈퍼마켓, 코메디, 뷔페, 초콜렛, 악세사리, 리더십, 로봇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문10】 다음 문장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 ① 날씨가 흐리고 한두 차례 비가 올 전망이다.
- ② 어리다고 알아보다가는 큰 코 다친다.
- ③ 영수는 나이는 어릴 망정 철은 다 들었다.
- ④ 그녀가 죽은지 3년이나 되었다.

